세계유산 '엔랴쿠지' 온라인서 만나요

10월,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공개
사이쵸 대사 원적 1200주기 맞아
MZ세대 겨냥 가르침 · 문화 소개
패션쇼 보며 실시간 구입도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오는 10월 개최되는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전등 라이브'의 홍보 메인 이미지. 사진출처=PR타임즈

일본불교 중요 성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히에이잔 엔랴쿠지(比叡山延暦寺)가 오는 10월, 온라인 라이브를 개최한다. 사찰 탐방은 물론 전통문화 소개와 패션쇼, 전통 공예품 라이브 커머스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온라인 라이브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PR 타임즈'는 '전등(傳燈) 라이브'라는 이름이 정해진 이번 이벤트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히에이잔 엔랴쿠지는 1200년에 걸쳐 일본의 문화와 사상, 역사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문화의 수원지라고도 불리는 이 도량이 현대문화와 다시금 함께 발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엔랴쿠지의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기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을 개설,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천태문화와 전통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번 목표다. 이번 이벤트의 이름인 '전등(傳燈) 라이브'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미래에 전달하듯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항상 연결되어 마음의 어둠을 밝히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다.

엔랴쿠지는 온라인 가상맵으로 사찰의 통탑(東塔) 구역을 재현하고, 이 맵을 선택하고 돌아보는 것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는 아미타당의 복도에서 열릴 패션쇼다. 일본의 기모노를 스트릿 패션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베듀타'의 의상 30여 점이 공개되는 이번 패션쇼는 모델들이 착용한 상품을 실시간으로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패션쇼에 사용되는 음악과 조명은 대부분 일본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패션뿐만 아니라 전통공예품도 라이브 커머스로 전시 및 판매된다. 운영 측은 "히에이산이 큰 영향을 미쳐온 일본의 전통공예를 MZ 세대들에게 소개하고, 또 새로운 최첨단 상거래의 방식을 장인들에게 소개하여 상생의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라이브 커머스의 목표를 밝혔다. 또 엔랴쿠지의 스님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사찰 투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타종 등의 행사도 모두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해 라이브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측은 프로젝트에 참가할 업체와 새로운 기획에 대해 공모를 받고 있다.

엔랴쿠지 측은 "이번 온라인 라이브는 이곳 천태의 성지에서 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운영 측 역시 "이번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日, 재해피난 장소로 사찰 활용

요코하마시 · 시불교회 공식협정
피난소 · 시신안치소 활용도 논의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 불교회가 대규모 재해 시 사찰을 피난장소로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사진출처=타운뉴스

호우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시 지역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피난하는 장소로 사찰을 활용하는 협약이 일본의 지자체와 불교계 간에 맺어졌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타운뉴스'는 재해 시 피난장소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요코하마시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칸토(關東)에 위치하며,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시(横浜市)가 불교계와의 협의 끝에 대규모 재해 시 주민들의 피난소 및 시신안치소 등으로 사찰을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요코하마시 불교회에 따르면 "2014년 요코하마시 니시구(西區)가 동일한 내용으로 불교회와의 협정을 맺은 바 있지만, 시 전체와 공식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넓은 부지를 가진 사찰을 재해 시 피난장소로 지정한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시 전체가 협정을 맺고, 그 내용에 단순 피난뿐만 아닌 시신안치에 대한 내용까지 담긴 것은 드문 경우다. 요코하마시 불교회 회장인 요시나미 유쇼 스님은 "올해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칸토 대지진이 있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법요를 준비하며 사찰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생각했다. 이중 열린 사찰을 위한 한 방법으로 피난장소로 사찰을 개방하는 것을 시에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요코하마시의 다카사카 테츠야 위기관리감독은 "사찰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의 의지처다. 지역민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장소가 피난소로 늘어난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불교계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요코하마시 불교회에 가입한 사찰은 419개소. 이중 여러 자연재해에도 큰 영향 없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찰을 선정해 피난소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쇼 스님은 "원래 사찰은 지역정보의 중심지로, 현대의 학교나 구청, 보건소와 같은 곳"이라면서 "피난소로 사찰을 개방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다시금 사찰이 지역에 녹아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청년 불교화가, "그림은 영적 실천 연장선"

존 윌리엄스, 블루밍턴센터 전시
'타라 보살' 작품 "소박함의 표현"



미국 인디애나주서 활동한 불교 청년화가 존 윌리엄스.

미국 인디애나주 북서부에서 활동하는 불교 청년화가 존 윌리엄스(John Wilems)가 타지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연다.

존 윌리엄스는 아크리트 아트 콜렉티브(The Accrete Art Collective) 주최로 블루밍턴 아트 얼라이언스 센터(Arts Alliance Center)에서 열리는 기획전 '거품 같은, 그리고 공허한' (Fluffy & Airy)에 참여한다. 해당 전시는 생각, 자연, 그리고 단순함을 주제로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린다.

그의 주작업은 불교 도상화(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이다. 블루밍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도 그는 고통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타라(Tara)보살을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그는 "타라보살은 자비와 연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면도 지니고 있다"며 "그걸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그림은 내 영적 실천의 연장선"이라고 웃어 보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삶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연히 만난 명상치유모임에서 그 답을 찾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치유모임은 나를 나아가게 했고, 예술로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며 "불교는 당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명상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에 머무르게 도울 것"이라며 "나에게 있어 불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고 또한 벗어나게 했다"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머리를 맑게 하고 평정을 찾기 위해 종종 명상을 한다. 불안감, 슬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위함이다. 그는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불자이든 관계없이 명상은 영적 치유를 위한 훌륭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자신이 불교로부터 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는 "타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작품들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대법 '낙태죄 합헌' 판결 불교계 찬반 '극명'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성 선택권 존중" 엇갈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교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6월 28일 "불교는 낙태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교계 반응을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6명의 대법관들은 '합헌' 판결을, 민주당에서 임명한 대법관 3명은 '위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이들은 '5대4' 의견으로 낙태권을 보장했던 이전 결정들을 기각했다. 이로써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50여 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이 가운데 불교계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불교 덕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교 매체 릴리전 언플러그드(Religion Unplugged)는 "불교는 윤회를 믿으며, 인간 생명은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친다"는 영국의 불교학자 데미온 키온(Damien Keown)의 말을 인용하며 "새로운 존재(태아)는 성인 인간과 같은 도덕적 존재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퓨리서치(Pew Reserch)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불자 중 82%가 '모든 또는 일부 상황에서 합법적 낙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해당 매체는 "불교는 생명을 해하는 낙태를 교리상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임산부에게 중요한 선택에 대한 연민과 관용의 관점에서 찬성하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경우 여성들이 불법 의료 현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보자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